

# | 해양영화 |



## 사관의 책무와 조국애

### 〈Master and Commander〉

(피터 위어 감독, 러셀 크로우 주연, 20세기폭스, 2003년)

| 김성준 |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부

sjunekim@kmou.ac.kr

### 들어가며

필자에게 가장 즐겨보는 해양영화를 꼽으라면 나는 단연 ‘레이디 해밀턴’과 ‘마스터 앤 커맨더’를 꼽을 것이다. 두 영화 모두 넬슨 시대 범선 해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레이디 해밀턴’은 넬슨 제독과 해밀턴 부인과의 연애담을 한 축으로 하고, 넬슨의 대 나폴레옹 전쟁을 다른 축으로 하여 전개되는 역사영화다. 이에 대해 마스터 앤 커맨더는 넬슨이 사망한 1805년을 시공간으로 한 해양소설을 각색한 영화다. 이 두 영화는 필자가 즐겨보는 해양영화로, 1년에 한 두 번씩 학생들과 함께 보곤 한다. ‘레이디 해밀턴’은 1941년 알렉산더 코르다 감독이 제작한 흑백영화인데, 이미 『영화에 빠진 바다』(혜안, 2009)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 있다.

‘마스터 앤 커맨더’는 2003년 피터 위어 감독이 제작하고 러셀 크로우가 주연으로 열연했다. 20세기 영국 최고의 해양소설가인 P.K.O’ Brian의 해양소설 ‘Master and Commander :



Far Side of the World'를 각색한 영화다. 2015년 Argus라는 닉네임을 쓴 평자는 '마스터와 커맨더(Master and Commander)를 이 분야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구분하는 특징은 진정성(authenticity)'이라며 다음과 같이 호평하였다.

“관객들은 범선 시대 나폴레옹 전쟁에서 영국 프리깃인 HMS Surprise호를 타고 전 세계로 항해한다. Patrick O'Brian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HMS Surprise와 그의 환상적인 프랑스 적 Acheron과 관련된 공해에서 벌어지는 쥐와 고양이간의 모험담이다.

경험 많은 피터 위어(Peter Weir) 감독의 연출은 감성이나 도덕 철학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서 의무의 성격, 과학적 탐구의 중요성 및 인간 삶의 가치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훌륭한 시나리오에서 믿을만한 캐릭터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다. 밤에 목재 갑판을 걸을 때 기분 좋게 삐걱 거리거나 안개 낀 사주에서 유령처럼 생긴 적함이 출현하는 등 위어 감독은 독창적인 능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그밖에도 Ralph Vaughan Williams의 아름답고 격렬한 Thomas Talis 주제에 의한 환타지와 갈라파고스 제도의 장엄한 영상을 포함한 클래식 음악은 이 영화의 압권이다.”

이 영화로 피터 위어 감독은 제9회 크리티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패션영화상, 제24회 런던비평가협회 작가상(존 콜리와 공동수상), 작품상, 제57회 영국 아카데미 데이빗 린 상을 수상했다. 촬영감독인 리셀 보이드는 제76회 아카데미상 촬영상과 제38회 전미비평가협회 촬영상을 수상했고, 스테픈 매튜린 역을 맡았던 폴 베타니는 제24회 런던비

평가협회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음향감독인 리처드 킹은 제76회 미국 아카데미상 음향효과상과 제57회 영국 아카데미 음향상을 수상했다. 아마존의 영화평에서는 별 5점 만점에 4.7점을 얻었다.

미국에서는 2003년 11월 개봉되어 2004년 5월까지 상영되어 9392만 7920달러의 수입을 벌였고, 해외에서는 1억 1808만 3191달러를 벌여 총 21억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이는 제작비 15억달러에 비해 1.4배의 투자수익을 올린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1월 28일에 개봉했는데, 해양과 배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의 정서 탓인지 전국적으로 4만 5000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데 그쳤다.<sup>1)</sup>

## 즐거리

“해군성의 항해지시서 - 서프라이즈호 함장, 프랑스 사나포션 Acheron호의 남해(태평양) 진입 전 나포, 소각, 격침하라. 1805. 4”

캘러미와 홀름 두 실습사관이 당직을 서고 있는 동안 수평선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 당직사관인 홀름이 전투 발령을 주저하고 있는 사이 캘러미가 ‘전투 명령’을 발한다. 전 선원이 전투배치 되기도 전 아케론호의 기습공격으로 서프라이즈호는 사망 9명, 부상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한편, 방향타가 깨어지고, 침수 피해를 입는다. 이 기습공



1) <https://www.myclebs.com/movie/254171/total>(2019.2.21.)

격으로 오른팔에 총상을 입은 실습사관 블랙니는 오른팔을 절단하게 된다.

잭 오브리(Jack Aubrey) 함장(Russel Crowe 분)은 키가 부러져 기동할 수 없게 된 서프라이즈호를 브라질해안의 hidden reef에 숨겨 수리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전 선원은 서프라이즈



호를 보트로 묶어 노를 저어 안개 속으로 이동시켜 아케론호를 따돌린다. 수리를 하는 동안 브라질 원주민들로부터 아케론호가 남쪽으로 향했다는 말을 듣게 된 오브리 함장은 즉시 수리를 마무리짓고 아케론호 추격을 재개한다.

아케론호를 추격하는 동안 갑판에서는 선의인 스테폰 매튜린(Paul Bettany 분)이 두개골에 상처를 입은 조리병의 뇌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다. 이 조리병은 손에는 'hold fast'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사관 식당의 저녁 식사시간 : 오브리 함장은 실습사관 시절 벨슨 경과 함께 승선했던 일화를 들려준다. "식사 중 벨슨 경이 내게 말을 걸었지. '오브리, 소금 좀 줘.' 또 이런 일화도 있었지. 한 겨울 갑판에 코트도 입지 않고 있던 벨슨 제독에게 부하가 코트를 건네려 하자, 벨슨 제독은 '뜨거운 조국애로 불타고 있어 나는 춥지 않다.'며 코트를 거부했다. 다른 사람이 이랬다면 치졸한 영웅심으로 치부했겠지만, 벨슨 제독이었기 때문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한 사관의 선창으로 'Spanish Ladies'를 합창한다.



<p>1절 Farewell and adieu to you, Spanish Ladies Farewell and adieu to you, ladies of Spain; For we've received orders for to sail for old England But we hope in a short time to see you again</p>	<p>2절 We hove our ship to with the wind from sou'west, boys We hove our ship to, deep soundings to take; 'Twas forty-five fathoms, with a white sandy bottom So we squared our main yard and up channel did make</p>
<p>후렴 : We will rant and we'll roar like true British sailors We'll rant and we'll roar all on the salt seas Until we strike soundings in the channel of old England; From Ushant to Scilly is thirty-five leagues</p>	

다음날 아침 서프라이즈호의 후미에 아케론호가 나타난다. 뒷바람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5시간 정도면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밤이 되자 작은 작은 보트에 불을 켜 서프라이즈호처럼 위장한 뒤, 서프라이즈호의 키를 'hard larboard(좌현 전타)' 하여 다음날 아침 아케론호의 후미에 위치하게 한다. 아케론호의 속력이 서프라이즈호보다 빨랐기 때문에 추격전은 케이프 혼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험하기로 이름난 케이프혼에서 강풍으로 서프라이즈호 주돛의 활대가 부러져 활대 위에 올라가 있던 실습사관 윌리가 바다가 빠지게 된다. 게다가 활대가 sea anchor처럼 지지대 역할을 하게 되어 서프라이즈호는 급경사를 하게 되어 전복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잭으로서의 윌리를 구하느냐, 배를 구하느냐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결국 배를 택한 잭은 함장으로서 활대 줄을 도끼로 직접 잘라 그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의지를 표시한다. 활대 줄이 모두 끊어지자 서프라이즈호는 직립하게 되자 선원들은 환호하지만, 배와 연결한 활대 줄이 모두 끊기게 된 윌리는 바다 속으로 사라져 간다.

이로 인해 서프라이즈호는 케이프혼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윌리를 잃은 선내 분위기는 가라앉는다. 선의이자 친구인 스테픈은 잭에게 ‘기를 고치고 바로 귀환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에 잭은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선원들에게 휴식도 주고 식료품도 보충하기로 한다.

갈라파고스 섬으로 가는 항해 중 야간 여흥시간에 선원들은 입을 모아 ‘Don't forget your old shipmate’를 합창한다.

Safe and sound at home again, let the waters roar, Jack. Safe and sound at home again, let the waters roar, Jack.	Since we sailed from Plymouth Sound, for years gone, or nigh, Jack Was there ever chummies, now, such as you and I, Jack?
Long We've tossed on the rolling main, now we're safe ashore, Jack. Don't forget your old shipmate, faldee raldee raldee raldee rye-eye-doe	

갈라파고스 섬에 기항하여 선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선의 스티븐은 자연사연구를 위해 갈라파고스의 기이한 동식물을 관찰하고 채집한다. 그러는 사이 한 포경선 선장이



아케론호에게 습격당한 사실을 전한다. 이에 잭은 그 선장을 선원명부에 등재하고, 즉시 출항 명령을 내린다. 스티븐은 자연사 연구를 할 기회를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며 잭과 언쟁한다. 그러나 잭은 서프라이즈호는 개인의 취미를 위한 배가 아니라 왕의 배(King's ship)며, 아케론호를 추격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duty)라고 반박한다.

아케론을 추격하는 도중 잭은 선원들과 함께 함포사격속도를 높이



는 훈련을 실시한다. 남해(현 태평양)로 진입한 서프라이즈호의 선원들은 무풍과 무더위에 지쳐가고, 선내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는다. 이런 상황에서 네이글이라는 수병이 실습사관인 홀름을 어깨로 밀치는 작은 항명사건이 발생한다. 잭은 선내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네이글에게 채찍형을 내린다. 잭은 실습사관 홀름을 불러 '선원들과 친해질 생각은 하지마라. 사관에게 필요한 것은 leadership, respect, discipline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충고한다. 아무 기약없이 아케론호를 추격하던 서프라이즈호의 상황은 무풍과 무더위, 네이글의 채찍형 등으로 흉흉해진다. 이에 잭은 친구인 스테픈에게 조언을 요청한다. 스테픈은 홀름은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정신적 공포에 떨고 있고, 네이글의 채찍형으로 인해 선내 분위기도 좋지 않으니 귀환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잭은 단호하게 '배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항명은 내 배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아케론호를 적도까지 추격하는 것이 의무(duty)였네. 이미 해군본부의 지시는 어긴 셈'이라며 추격을 계속하기로 한다. 한편, 자신 때문에 네이글이 채찍형을 받았다는 자책감에 홀름은 야간당직시간 중 대포알을 집어 들고 물에 뛰어들어 자살한다. 홀름의 저주가 풀린 탓인지 곧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서프라이즈호는 원활하게 항해할 수 있게 된다.

항해 중 선원이 갈매기를 잡기 위해 쓴 총알에 스테픈이 맞는다. 선의 보조가 스테픈을 수술해야 하지만, 자신이 없어 육지에서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고 얘기한다. 이에 잭은 친구를 살리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아케론호 추격을 중단하고 갈라파고스로 돌아가기로 한다. 스





스테픈은 자신이 직접 수술을 통해 총알을 빼내고, 회복된다. 자연사연구를 위해 날지 못하는 가마우지를 잡기 위해 구릉 위로 올라간 선의 스테픈은 아케론호를 발견하고 서둘러 귀환하여 이 사실을 잭에게 보고한다. 즉시 출항명령을 내린 잭은 블랙크니가 갈라파고스에서 잡아온 자벌레를 보고 위장전술을 써 아케론호를 유인하기로 한다. 이 위장전술에 속은 아케론호가 포경선 사이렌호로 위장한 서프라이즈호를 약탈하러 접근한다. 서프라이즈호와 아케론호간에 격렬한 포격전에 뒤이어 육박전이 벌어진다. 결국 서프라이즈호가 선장을 잃은 아케론호를 포획하는 데 성공한다. 잭은 아케론호를 부장인 토마스 폴링스 (James D'Arcy 분)에게 지휘하도록 하여 영국으로 귀환하도록 한다.

에필로그 : 모처럼 평화를 되찾은 서프라이즈호 선상에 잭과 스티븐은 바이올린과 첼로를 합주하며 가볍게 대화한다.

스테픈 : '아케론호에 부상자가 많은 데 선의보조 1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잭 : '괜찮을 거야. 아케론호의 선의가 타고 있어.'

스테픈 : '아니, 선상 전투 중 사망했다던데.'

스테픈과의 대화를 통해 잭은 아케론 포획 시 아케론의 함장이 선의로 가장했음을 깨닫는다. 잭은 아케론호를 칠레까지 호위하기로 하고 서프라이즈호의 항로를 돌리도록 명령하고, 스테픈과의 합주를 이어간다.

## 사관의 책무와 조국애

마스터 앤 커맨더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하다. 영국 군함 서프라이

즈호와 프랑스 사나포션 아케론호간의 추격전이다. 그러나 도중에 발생하는 여러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과 사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배를 통한 국가간 경쟁에서 발휘되는 조국애 등이 부각되면서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가장 먼저 드러나는 갈등은 잭 오브리 함장과 그의 친구이자 선의인 스테픈 매튜린간의 의견 차다. 처음 갈라파고스에 기항했을 당시 자연사 연구가인 스테픈은 섬의 독특한 동식물을 채집하기를 원했지만, 잭은 아케론에 약탈당한 포경선 선장의 말을 듣고 즉시 출항명령을 내린다. 왜냐하면 서프라이즈호는 개인의 여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왕의 배'(King's ship)로서 국가에 복무하는 배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 상선의 뱃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가 선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재래선 시대에 비해 정박일이 짧아져 상륙할 시간이 없어졌다고 해서 선주나 선장을 탓할 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원들이 배를 떠나고 있지만, 떠나는 선원들을 탓할 일만은 아니다. 그들도 승선 경험을 바탕으로 배와 관련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발 사고로 총상을 입은 스테픈을 치료하기 위해 갈라파고스 섬에 기항했을 때는 다른 상황이 전개된다. 성공적인 자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 동식물 채집에 열중하던 스테픈은 아케론호를 발견하고, 채집한 것들을 버려둔 채 귀선한다. 스테픈도 이제는 자신의 자연사 연구보다 서프라이즈호에 부여된 임무, 즉 아케론호의 태평양 진입 저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이다.

두 번째 갈등은 나이든 실습사관 홀름과 선원들간의 갈등이다. 홀름이 당직을 설 때마다 아케론호가 습격하거나, 돛을 접을 때 윌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활대가 부러져 윌리가 죽는 등 좋지 않은 일들이 연

이어 발생한다. 이에 수병들은 홀름을 경원시하고, 심지어 네이글은 갑판 위에서 홀름을 밀치는 항명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게다가 당시는 태평양상의 적도 부근을 향해하던 중이라 무풍과 무더위로 배는 꼼짝 달싹하지 않고 있던 중이었다. 이로 인해 네이글은 채찍형을 받게 되고 함내 분위기는 더욱 나빠진다. 스스로 저주 받았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홀름은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실습사관 블랙크니에게 ‘고마웠다’는 작별인사와 함께 바다에 뛰어든다. 이는 어쩌면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죽음으로 벗어나려는 행위에 불과했다. 하지만, 피터 위어 감독은 홀름 자살 직후 소나기가 내리고, 바람이 불게 만들어 ‘홀름의 저주가 풀렸음’을 암시한다. 결국 홀름의 자살은 자기를 희생하여 서프라이즈호를 살리게 만든 셈이다.

세 번째 주된 이야기는 실습사관들의 희생이다. 초반부에 아케론의 기습공격으로 실습사관 블랙크니는 오른 팔을 잘랐고, 활대가 부러져 배를 전복시킬 위험에 처하자 활대 줄을 잘라 윌리가 희생되었다. 아케론과의 최후의 백병전에서는 켈러미가 사망했고, 홀름은 자살했다. 결국 실습사관 4명 중 오른팔을 잃은 블랙크니만 목숨을 부지한 셈이다. 이것은 정식 임관 장교가 희생된 것에 비해 훨씬 울림이 크다. 초반부에 블랙크니가 오른팔을 잘라내는 장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가장 운이 좋은 실습사관이 된 셈이다.

네 번째 주된 메시지는 배는 ‘바로 국가 자체’라는 것이다. 아케론호과의 최후의 일전에서 잭은 전 선원들에게 전투의욕을 고치하면서, ‘Surprise is England’라고 말한다. 이는 배를 ‘떠다니는 영토’라고 인정하는 오늘날 해양법 하에서도 틀린 말이 아니다. 배는 곧 국가이므로 배가 많고 적음은 곧 한 나라의 국력의 척도가 된다. 배는 단순히 전투를 하거나, 짐을 실어나르는 운송도구가 아닌 것이다. 2016년 한진해운의 파산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었다. 해운회사는 단순히

배를 이용해 짐을 실어 나르고 돈을 버는 개인회사가 아니라, 국가의 물류네트워크의 핵심역할을 하는 공적 기업이다. 조정 박제가가 『북학의』에서 ‘쌀이 창자라면, 수레와 배는 혈맥이다’라고 갈파한 것은 아주 적절한 비유였다. 즉 한두끼 밥을 먹지 않더라도 목숨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나 피가 돌지 않으면 단 몇 분도 견디지 못한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꿔라’는 화물연대의 슬로건이 결코 세상을 향한 위협이 아닌 것이다.

‘마스터 앤 커맨더’가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거친 선원들과 포격전, 백병전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잭과 스테픈은 바이올린과 첼로를 합주하며 기품있는 선상생활을 한다는 것이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잔 받침을 사용하고, 흔들리는 식탁에서도 음식에 맞는 그릇에 칼과 포크 등을 이용해 밥을 먹는다. 마스터 앤 커맨더에서는 배경음악으로 클래식 음악이 아주 절묘하게 사용되고 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3악장, 본 윌리엄스의 두 개의 현악기를 위한 토마스 탈리 주제에 의한 판타지아, 코렐리의 크리스마스 협주곡 중 아다지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보케리니의 현악 5중주 OP.30-6 등 5곡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선원들의 노동요인 shanty로 ‘Spanish Ladies’와 ‘Don’t forget your old shipmate’가 배치되어 선원들의 여흥문화를 맛볼 수 있게 한다. 올해도 학생들과 함께 이 영화를 감상해야겠다.